

## 한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에 관한 연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구상

박명림 ■ 연세대학교\*

강효인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본고는 20세기의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독특한 3층위 연방제 평화구상에 관한 연구이다. 아렌트는 이스라엘 건국 전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가올 혹독한 분쟁을 예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연방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혼성적인 민족들이 공존하는 장구한 인종·문명·종교 간 충돌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동안 아렌트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평화사상, 특히 연방(federation) 개념과 구상을 일차 저작들에 바탕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안팎을 함께 보는 아르키메데스적인 사유전환을 통해 국민국가 체제 및 주권 개념에 대한 예리한 비판 위에서 유대 국민국가-이스라엘 건설 노선을 비판한다. 동시에 아랍과 유대의 공동체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안으로서 아랍인-유대인 지역 공동체 평화회의, 지역연방(지중해연방/신영연방), 유럽연방으로 이어지는 아랍-유대 3층위 연방안을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 이 3층 연방안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민족·다종교·다문화의 융합과 충돌로 혼합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체인 것이다.

\*주제어: 한나 아렌트, 연방, 연방제, 평화구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주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E-mail: mlpark@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연구원  
(E-mail: irin.hyoin@gmail.com)

## I. 문제제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의 예언자들, 곧 비전과 인간성을 지닌 자들이 존재하는, 신성의 세계로 향하는 지상의 관문”(Nusseibeh & David 2007, 550)이면서,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많은 거룩한 살인, 강간, 약탈”(몬티피오리 2012, 618)이 일어난 곳, “세상에 남아있는 기록들 중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엄청난 사건들의 극장”(Barclay 1858, xii).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 묘사들은, 성지(Holy Land)를 둘러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압축 설명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대륙 간의 경계이며, 문명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헬라문명의 교차지이고, 종교적으로는 세계 3대 일신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발원지이다. 따라서 문명과 종교 간의 오랜 긴장과 충돌의 무대인 동시에, 혼성적인 인종과 민족들이 혼용하며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1948년 이스라엘의 근대국가 건립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본이었다. 중동 전체와 유럽, 미국, 소련(러시아)까지 휘말렸던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과, 1987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저항하는 인티파다(Intifada)<sup>1)</sup>,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발발한 제3차 인티파다, 그리고 계속되는 무력분쟁과 역내 테러는 아직도 이 지역이 극도의 위험지대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1920년 이래 양측 간 전쟁 및 테러에 의한 사망자수를 보면 유대 측 2만 5천여 명, 아랍 측 9만 1천여 명으로 총 11만 6천여 명에 달한다(<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2020/01/15> 검색). 또한 중동전쟁 이후로 연속된 역내 정정불안과 레바논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최근의 이란-미국 간 분쟁까지 고려한다면 중동지역은 ‘사실상의 상시 분쟁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1940년대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로 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하 이·팔분쟁)의 전조를 일찍이 예견한 바 있다. 1943년과 44년, 시온주의자들의 유대국가 건설안을 비판하며 아랍인들의 이등시민화를 우려했고(Arendt 1943b, 337; Arendt 1944c, 343), 1947년 UN의 팔레스타인 분할안(United

1) 아랍어로 ‘봉기’라는 의미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의한 민중봉기를 의미한다.

Nations Partition Plan for Palestine; United Nations, 29 November 1947)이 공표되자 아랍인들의 권리가 조직적으로 침해될 것이며 유대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보았다(Raz-Krakotzkin 2011, 111-113).

본인이 나치의 혹독한 피해를 받은 유대인인 아렌트는 왜 유대국가의 건설을 비판했던 것일까? 그는 이를 반대하며 무엇을 이에 대한 해법과 대안으로 제안했는가? 그가 팔레스타인 역내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연방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과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고질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이 지역을 넘어 다인종·다민족·다문화·다종교 간 갈등을 안고 있는 다른 경계지역들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함의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아렌트의 저작들로부터 그가 이·팔 분쟁의 해법으로 제시한 ‘연방제(federation)’구상을 새롭게 발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렌트에 대해서는 ‘행위(action)’ 및 ‘공공성(res publica)’(김선욱 2001; 김선욱 2015; 서유경 2014; 홍원표 2004), ‘탄생성(natality)’(공병혜 2017; 박혁 2009),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김선욱 2007; 장원석 2014; 홍원표 2005), ‘권리를 가질 권리(a right to have rights)’(김민수 2019; 서유경 2018; 임미원 2019; 홍태영 2018)등 그의 핵심 이론과 개념 및 주장을 둘러싼 수준 높은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렌트의 연방개념과 구상은 아직 국내의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은 동시에 깊이 분석되지도 못해온 주제였다. 반면 국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각도에서 아렌트의 연방 개념이 다루어져 왔다. 아렌트의 주권비판 논의와 연방제안 탐구(Klusmeyer 2010), 1940-1946년 아렌트의 유럽연방 구상의 분석(Selinger 2016), 아렌트가 유대국민국가 건설을 반대하고 연방안을 주장하다 1국가 2민족안(binationalism)으로 변경한 경로(Jacobson 2013; Rubin 2015), 아렌트 연방제 원리의 평화유지의 역할(Heuer 2019)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방제 평화구상이 당대 뿐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상황에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아렌트의 유대문제 관련 일차 저작들에 바탕하여 그의 연방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핵심 분석대상으로 삼은 아렌트의 텍스트들은 Jewish Writings(2007)에 포함된 관련 저술들이다. 특히 “The Minority Question(1940),” “Can the Jewish-Arab Question Be Solved?(1943),” “The Crisis of Zionism(1943),” “The End of a Rumor(1944),” “The Jew as Pariah: A Hidden Tradition(1944),” “Zionism Reconsidered(1944),” “The Failure of Reason: The Mission of Bernadott(1948),” “To Save the Jewish

Homeland(1948)," "Peace or Armistice in the Near East?(1950)"를 핵심 전거 삼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Jewish Politics(1942)," "We Refugees(1943)," "The Assets of Personality: A Review of Chaim Weizmann: Statesman, Scientist, Builder of the Jewish Commonwealth(1945)," "The Jewish State: Fifty Years After, Where Have Herzl's Politics Led?(1946)," "Magnes, the Conscience of the Jewish People(1952)," "Single Track to Zion: A Review of Trial and Error: The Autography of Chaim Weizmann(1949)" 를 참고하였으며, 『인간의 조건』을 포함한 관련 저작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아렌트의 연방구상의 내용을 발굴·소개하고, 그것이 제로섬(zero-sum)게임에 가까운 이·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경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 구상이 이·팔 분쟁을 넘어 만성적 분쟁지역의 갈등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해법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적 차원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왔던 아렌트의 연방 개념과 구상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아렌트 연구의 지평이 평화와 화해의 영역으로 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후의 참극과 혼돈 속에서도 시온주의와 유대국가 건설을 비판할 수 있었던 아렌트적 사유의 근거점으로서 일종의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근대 이·팔 분쟁의 역사 속에서 양 국가론(Two-State Solution)과 일 국가론(One-State Solution)이 등장·전개·쇠퇴되는 과정을 살펴보려한다. 이는 영국과 국제사회라는 한 축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부라는 다른 한 축을 상호 교차해가며 직조하려한다. 이어서 주권과 국민국가 위주의 접근과 해결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아렌트의 주장과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유대-아랍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이론 및 경로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 구상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이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한나 아렌트의 아르키메데스 점에서의 사유

한나 아렌트는 전형적인 아르키메데스적 인간이었다. 아렌트는 지구라는 환경과 관찰자인 인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구는 우주의 관점으로 관찰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Arendt 1998, 257-280; Holland & Landgraf 2014; Yaqoob 2014; 박명림 2015). 지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지구 밖 우주의 보편 관점을 취하면서부터 인간은 지구적 존재가 아닌 우주적 존재로 확립되었으며, 지구를 당연하게 주어진 인간 거주 조건이 아닌 하나의 사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밖 한 점이라는 가설적 지점을 설정해 그곳으로부터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적·보편적 인식론을 시도한 사상가였다. 이러한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은 보편적 회의를 시작하게 하는 거리두기의 지점이자, 근대과학, 나아가 근대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생시킨 혁신적 사유의 지점이었다.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은 아렌트 본인의 사유의 노력에서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인식의 근거지와도 같았다. 아렌트는 인간이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거리두기(*distanz/distance*)를 행할 때 비로소 균형감 있는 측정능력, 사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Arendt 1998, 251).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은 바로 아렌트가 평생 취하고자 했던, 자신이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사유의 지점이었다. 이는 아렌트가 “바깥에서 상황을 본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아렌트 2016, 54). 이로써 아렌트는 항상 양 극단을 거부하는 균형감으로 나아갔다. 그렇기에 “무모한 낙관주의에도, 분별없는 절망에도 반대”할 수 있었다(아렌트 2006, 34). 이러한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아렌트 개인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신이 홀로코스트 피해로 대표되는 유대민족에 속했음에도, 또한 나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학살에 대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현실에 주의 깊게 맞서서 당대가 인간에게 부여한 짐을 의식적으로 떠맡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2천년 동안 모든 정치적 행위를 피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었다. 또한 자신들의 실존을 반유대주의자 혹은 파르뉴(*parvenu*)의 양 쪽에 의존하려 했다(번스타인 2009, 39-46). 따라서 19세기 말 정치적 반유대주의가 돌출했을 때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점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번스타인 2009, 99-100).

실제로 그는 이 주장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격렬한 비난 뿐 아니라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집단을 비판했으며, 자신이 유대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아렌트는 실제로 끝까지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에서의 사유와 행위를 실현하려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렌트는 ‘상투적인 틀’이나 ‘유추와 일반화’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렌트 2006, 34). “당신은 보수주의자인가? 아니면 당신은 자유주의자인가?”라는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물음에 대한 아렌트의 답변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나는 모른다. 나는 실제로 모르며, 결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좌파들이 나를 보수주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나를 좌파라고 생각하거나 독립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이 세기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러한 종류의 일로 어떠한 형태의 해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영브릴 2007, 727) 이처럼 그는 기존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분법을 거부했으며, 전체를 사유할 뿐 자신의 입지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런 그가 거의 유일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패리아(pariah)였다. 패리아는 천민족속(pariavolk)이라는 단어에서 비롯한 것으로 저주 받은 민족을 의미한다. 베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사회 계층을 연구하면서 유대교를 “파리아인들의 종교”라 언급했던 바 있으며(Weber 1958, 13), 야스퍼스는 2차대전 후의 독일인의 상황을 패리아에 비유하기도 했다(야스퍼스 2014, 75). 패리아는 곧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social outcasts)이며, 유대인 패리아는 계몽과 유대인 해방 이후의 서유럽 유대인들, 즉 추방당한 유대인의 지위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아렌트는 베르나르 라자르(Bernard Lazare)와 같이 유대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온 의식적 패리아(conscious pariah)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의식적 패리아란 “그 자신의 위치를 깨어 의식하며, 이에 저항하여 억압받는 자들의 챔피언이 된” 자들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저항하는 자들이다(Arendt 1944b, 283). 이는 곧 지구 안에서 지구 밖의 관점을 취했던, 그리고 국가 내에서 국외자로서 국가와 세계를 사유한 아르키메데스적 인간과도 통하는 말이다. 이러한 독특한 사유의 지점에서 아렌트는 유대아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시도하여 기존의 국민국가를 비판하면서도 연방제안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II. 평화안: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의 전개와 한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왜 현재까지도 이토록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왜 지금, 그동안 묻혀있던 아렌트의 연방제 구상을 발굴하여 소

환하려하는가? 이는 1948년 건국 이후, 특별히 중동전쟁 이후 확립된 기존의 이스라엘 정치체가 지닌 법률상(de jure) 위상과 사실상(de facto)의 위상의 중대한 차이 때문이며, 이러한 차야말로 끊임없는 논쟁과 무력분쟁을 낳는 근본원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의 발생과 현 체제 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만 아렌트 논의를 발굴하고 소환하는 이론적이며 현실적인 적실성을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대국가(Jewish State)이다. 2019년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는 “민족국가법(Jewish Nation-State Law)”을 통과시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국이며 그들은 배타적 자결권을 지닌다(<https://main.knesset.gov.il/EN/activity/Pages/BasicLaws.aspx>. 2020/01/15 검색)”고 명명했다. 따라서 법률상 이스라엘의 국민은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은 무국적자이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1967년 6일 전쟁(Six Day War; Al Nakba)이라 불리는 제2차 중동전쟁 이후,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 서안지구(West Bank), 가자지구(Gaza District)에 존재하는 다수는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인 혹은 아랍인으로 인식한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 및 점령지역(Occupied Territories)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지닌 아랍인, 팔레스타인 아랍인 등 단일민족 혹은 단일국민 정체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혼성적 배경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법과 현실 간의 현격한 괴리가 바로 이·팔 분쟁의 근원인 동시에 난점이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제기되었던 평화의 안들은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 국가론은 그 형태나 양상이 세분화될 수 있어 하나로 통칭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sup>2)</sup> 궁극적으로 일 국가안이 의미하는 바는 인종·민족·종교의 구분 없이 영토 내 거주하는 개개인의 단일한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정한다. 반면, 양 국가안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자결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아랍과 유대가 각각 따로 주권국가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안 모두 큰 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승인하는 국민국가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의 발생 및 전개와 더불어 영국위임통치 시기부터 등장한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의 발생·전개·쇠퇴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2) 일 국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s'ad & Bavly 2016 참고. 해당 논문의 제목은 “The Recent Debate about Binationalism”이지만, 전반적으로 1국가 안을 포괄하여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다루고 있다.

제까지 안들의 특징과 한계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팔 분쟁의 시작인 20세기 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인구 비율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제1차 세계 대전의 초기인 1915년, 영국은 오스만 제국 중심의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기 다른 전략으로 환심을 사려했다. 같은 해에 메카의 군주였던 후세인(Sayyid Hussein bin Ali)에게는 독립국가 설립을 약속하는 서한(Hussein-McMahon Correspondence)<sup>3)</sup>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1917년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로스차일드(Walter Rothchild)에게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을 위한 민족 고향의 건설에 호의를 표한다”는 선언(이른바 벨푸어 선언, Balfour Declaration)<sup>4)</sup>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본심은, 전쟁이 끝난 후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고 지역패권을 확보하고자 1916년 프랑스와 체결했던 비밀협정, 즉 사이크스-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에 있었다. 그리하여 1920년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와 영국은 산레모 회의(San Remo Conference)에서 각각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내 영국 위임통치가 1948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유대인 박해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아랍-유대 간 갈등이 본격화된다. 그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유대인, 기독교, 무슬림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33년 이래 유대인 이주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아랍 토착민들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위임통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소요사태(Arab Riots)가 발생했다. 특히 1936년은 홀로코스트를 피해 13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던 절정기였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아랍인들은 1936년 4월 나블루스(Nablus)에서 툭카름(Tulkarm)으로 가는 수송대의 유대인 두 명을 살해했고, 유대인 희생자 장례식에서 소요사태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총기소유자에 의해 두 명의 아랍 노동자들이 살해되었다. 전국적인 아랍봉기로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계속되는 폭력 사태를 관망할 수만 없었던 영국은 유대-아랍 간 갈등의 해결

3) 1915년 7월부터 1916년 1월에 걸쳐, 메카의 군주 후세인과 카이로의 고등관무관 사이에 주고받은 서한 모음 (Smith 2017, 87-92). 아랍독립에 대한 요구와, 전쟁 이후 프랑스의 영토권 영유에 대한 아랍의 반대를 담고 있다.



을 위해 고심했다. 이에 1937년 필 위원회(Peel Commission)의 보고서를 통해 최초의 양 국가안을 발표한다. 팔레스타인의 20%에 해당하는 지역, 갈릴리의 북쪽 지역과 나사렛의 남쪽에 해당하는 제즈릴 평야(Jezreel Plain), 그리고 레바논 국경부터 야파(Jaffa)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대국가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성지이므로 위임통치 하에, 이외 나머지 영토는 아랍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다(Peel et al. 1937, 380-386). 보고서는 아랍과 유대인들이 단일 국가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두 민족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아랍 공동체는 아시아적 성향이 우세하고, 유대 공동체는 유럽적 성향이 우세하다. 그들은 종교, 언어, 문화 및 사회적 삶의 양식, 사고와 행동방식 모두가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랍인과 유대인의 국가적 동질화는 불가능해 보인다(Peel et al. 1937, 370).” 아랍봉기가 격화되는 한편 시온주의자들과 후세이니(Mufti al-Hajj Amin al-Husayni)가 각각 독립된 국가 건설을 요구하자, 필 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각각 독립국가, 즉 양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여겼던 것이다. 또한 기독교 성지인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유대국가가 수립될 지역에 거주하는 25%의 아랍인들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었다. 이에 아랍은 반발했고, 같은 해 9월 영국 고위관리가 봉기 참여자에 의해 암살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유대-아랍 간 폭력과 복수의 고리에 영국군경이 가세하여 아랍인들을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1936-39년 동안만 415명의 유대인과 5,000여명의 아랍인들이 목숨을 잃었다(<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 2020/01/15 검색).<sup>5)</sup>

1939년, 영국정부는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해 10년 내에 두 민족이 이원화된 정부로 통일국가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팔레스타인 내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각자의 본질적 이해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의 권위를 공유하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MacDonald 1939)”였다. 필 보고서 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독립된 아랍과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일 국가안이었다. 『백서』는 총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째 헌법(The Constitution), 둘째 이민(Immigration)의 제한, 셋째 영토(Land), 즉 유대인들의 영토구매에 제한을 둔 것이다. 특기할 것은 벨푸어 선언이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화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

5) 1936-39년 영국이 아랍 봉기를 진압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1차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 Hughes 2009참고.

다. 또한 5년 후인 1944년부터는 아랍인들이 받아들여야만 유대인 이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시온주의자들로부터 격렬히 비판받았다. 아랍 최고 위원회 역시 팔레스타인의 즉각적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Smith 2017, 143).

이처럼 몇 년 새에 양 국가안과 일 국가안을 번갈아 내놓은 것을 보면 영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한 정치체 설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집트, 아프리카, 이라크, 인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안보와 소통의 고리로 여겨져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가 아비시니아(Abyssinia, 현재의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사건 때문에 영국은 향후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집트와 이라크에서 득세하던 민족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근거지를 두고자 했다(Smith 2017, 139-140). 그러나 필 위원회의 분할안이나 『백서』의 일 국가안 모두 유대·아랍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계속되던 아랍봉기와 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어느 안도 현실화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2차 대전이 종결된 후인 1947년, 영국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이양한다. 이에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의 장래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for Palestine, 이하 UNSCOP)를 수립하였다. UNSCOP의 일부 위원은 이원화된 정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공동수도로 삼는 일 국가안을 구상하기도 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리하고 예루살렘을 유엔의 관할 하에 두자는 양 국가 분할안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져 회원국 중 33개국의 찬성표를 받고 의결에 성공한다. 1947년 유엔 분할 결의안을 통해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영토의 6.6%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56.47%라는 과반의 영토를 차지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낸 것과 다름이 없었다(홍미정 2006, 3-4). 이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결정적인 전거가 되었다.<sup>6)</sup>

결의안 발표 직후 중동은 분노한 팔레스타인과 국가수립에 필사적인 유대인

6)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을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라 부르며, 이날의 선언을 이스라엘 건국 선언(Declaration of Establishment of State of Israel)이라 칭한다. 또한 제1차 중동전쟁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Independence War)이라고 명명한다. 이스라엘은 건국과 독립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측 학자 및 민족주의자들은 건국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여기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이스라엘 국가건설의 의미에 방점을 두어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들 간의 전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서구의 지지와 무기지원을 통해 1967년 6월 전쟁 이후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후 차례로 1979년 이집트와의 협정을 통해서도 가자지역을, 1994년 요르단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서안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공인받았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토 합병과 점령지역화는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UN 역시 여러 번의 결정을 발표하며 불법임을 경고했다.<sup>7)</sup>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전 영토를 차지하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양 국가안을 고수할 이유는 없었다.

한편,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1918년 이래 영토 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은 1920년대에 영국에 의해 제기된 아랍-유대 간 대의기구 건설안도 거절했으며, 필 분할안에도 분노했다. 이에 따라 1937년 9월 아랍 측의 봉기 참여자가 영국 고위관리를 암살하여 제2차 아랍봉기가 발발했던 것인데, 당시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영국의 위임통치 및 뱌푸어 선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sup>8)</sup>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오직 '독립국가 수립'이었다. 또한 아랍 연맹(Arab League)은 유엔 결의안에 앞서 UNSCOP과의 교섭도 거부했다. 벤구리온은 이렇게 협상 대상의 부재로 인한 힘의 공백이 발생했으니 국경선은 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며 정당화의 논거를 마련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4차례의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 고착화되자 팔레스타인은 점차 영토를 잃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의 입법기관인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PNC: Palestinian National Council)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생존권을 최초로 인정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선포하여, 이전까지와는 달리 양 국가 해결안에 긍정적 태도로 선화했다. 현재까지도 PLO는 서안과 가자,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양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첫 평화협정인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은 양 국가안을 국제사회의 준칙으로 확립시킨 기점이었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한 평화협정으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팔 지역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냉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Itshak Rabin) 정부는 대화와

7) UN Resolution 478(UNSCR 1980)과 UN Resolution 497(UNSCR 1981) 참고.

8) 팔레스타인 지도부 내의 갈등은 항존했다. 지도자인 알 후세이니 가문(al-Husayni)은 영국의 어떤 제안에도 협력하기를 거부했으나, 예루살렘 시장인 라히브 알 나샤시비(Raghib al-Nashashibi)는 위임통치 지도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Smith 2017, 190).

협상의 기초 하에 ‘Land for Peace’, 즉 평화를 위해 영토를 할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팔레스타인 측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는 이러한 공격적인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역내 평화를 위한 주축으로 삼으려 시도했다. 1차 협상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안지구 예리코(Jericho)의 행정권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동했고, 2차 협상으로 서안지구 7대 도시인 헤브론(Hebron), 나블루스, 라말라(Ramallah), 예닌(Jenin), 툴카렘, 카킬라(Qalqilya), 베들레헴(Bethlehem)의 자치권이 이양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즈하크 라빈 수상의 암살, 또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하마스(Hamas)의 지속적인 테러행위, 아라파트 정부의 부정부패 등이 이어져 오슬로 협정은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 이유로 애초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불공정한 협상이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나,<sup>9)</sup> 핵심은 협상과정이 지난해질수록 결국 협상 당사자들이 ‘평화’를 뒤로 하고 국민국가 제도 하에서의 영토 및 주권 문제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협정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양자 간 무력충돌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양 국가론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다. 2019년 9월 총선 이후로 더욱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정치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양국가론을 지지하는 듯하나 실상 현상유지(status quo)를 고수하고 있다. 양 국가론을 통해 독립국가의 수립을 도모하던 팔레스타인 역시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마누엘 하사신(Manuel Hassassian)을 포함한 다수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은 최근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가 총선에서 재선을 거두고, 미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현실 앞에서 양 국가 해법은 수명을 잃었다고 본다(Hassassian 2019; Rosner 2019; Cashman 2019).

이처럼 갈등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평화안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화안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현실상황은 크게 유리되어 여전히 양자 간 갈등과 살육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아렌트의 독특한 이·팔 평화 구상을 소환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다. 그로부터 기존 평화안들이 지닌 한계를 넘어 3층 연방이라는 대안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의 단초를 찾아내보고자 한다.

9) 대표적인 연구는 Roy 2006 참고.

## IV. 한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안

### 1. 한나 아렌트의 주권 및 국민국가 관념 비판

아렌트는 유대국가 건설을 비판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전후 팔레스타인에 유대 연방국가(Jewish Commonwealth)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빌트모어 프로그램(Biltmore Program)’이 체결되면서부터였다. 1942년 5월, 시온주의자들은 미국 뉴욕의 빌트모어 호텔에서 유대연방국가의 건설, 그리고 유대기구(Jewish Agency)의 관장 하에 유대 난민들의 팔레스타인으로의 무제한적 이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을 발표하였다. 아렌트는 이를 선언한 유대인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세계 정치의 일반적 경향을 무시했다며, 현실감각 없이 빈 공간 위에서 외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The Crisis of Zionism(1943)”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Arendt 1943b, 337). 아렌트의 비판이 더 거세진 것은 1944년 10월 미국 애틀랜틱시티에서 열린 국제시온주의연합의 집회 이후의 일이다. 집회에서는 “분할되지도 축소되지도 않고 팔레스타인 전 영역을 포함하는……자유롭고 민주적인 유대연방국”을 포함하는 애틀랜틱시티 결의안(Atlantic City Resolution)을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기까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Arendt 1944c, 343).

아렌트가 비판했던 유대연방국가는 그가 언급한 바 있던 “진정한 연방(Genuine Federation)”과는 전혀 달랐다. 진정한 연방이란 명확히 식별가능한 국적(nationality) 또는 정치적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state)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연방 안에서는 그간 풀리지 않았던 소수-다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Arendt 1943a, 195). 그러나 유대연방국이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한 곳으로 이주하여 형성한 국가, 유대라는 민족 단위에 기반한 국가, 즉 단일민족국가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아렌트의 연방이 인간의 복수성(plurality)에 대응하며 공화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공화적 연방(republican federation)이라면, 유대연방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거주하는 다수의 아랍인을 무시하는 민족적 연방(national federation)이었다.

당시 아렌트가 유대국가의 건설을 비판했던 이유는 인간의 복수성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는 주권 개념 및 국민국가 체계를 비판했던 그의 사상의 원류로부터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렌트는 야스퍼스(Karl Jaspers), 말리노프스키

(Bronislaw Malinowski), 라스키(Harold Laski) 등과 함께 “공화국이라는 정치체 내의 주권의 지속적인 폐지(아렌트 2004, 257)”를 주장했던 혁신적인 사상가였다 (Sheehan 2006, 11-12). 또한 아렌트는 “주권과 전제정이 동일하다(아렌트 2004, 257)”는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주권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아렌트가 비판하는 주권 개념은 기본적으로 홉스(Thomas Hobbes)가 주창했던 주권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홉스 2009, 173-358). 홉스는 국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권력을 위임하는 사회계약과 절대주권을 옹호했다. 그가 주장하는 주권이란 정치권력의 주체와 정치권력을 서로 분리하는 데에서부터 그 전능성을 확보한다. 홉스적 세계에서의 개인은 자기중심적이며, 사적 부를 확대하고 개인의 도구적인 합리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이다. 국가는 이렇듯 개인이 축적하고 독점한 권력에 기반을 두는 한편, 인간을 권력 축적 기계의 한 부품으로 강등시켜버린다. 주권을 위임한 개인은 “전제정치에 대항하여 봉기할 권리도 없는 불쌍하고 온순한, 하찮은 사람(아렌트 2006, 300)”<sup>10)</sup>으로 전락한다.

아렌트는 주권과 자유는 정반대라고 보았다. 이는 주권이나 국가의 자주 독립이 곧 자유라고 본 서구의 전통적 견해를 뒤집는 것이다(Klusmeyer 2010, 36-37).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의 조건을 제시했던 아렌트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렌트가 제시한 인간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성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개별 인간들이 모두 다 다르며 유일하며 독립적인데, 이런 개인들이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수성을 지닌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망에 존재하므로, 그 누구도 완전한 자기지배를 달성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초에 전제했던 주권의 전능성은 개인이 곧 유일신일 때만 가능한 상상 속의 시나리오다. 또한 인간은 어떤 행위를 자유로이 시작할 수 있으나, 결국 취소할 수 없고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환원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자유는 주권과 공존하는 게 아닌, 비주권(non-sovereignty)과 공존한다. “주권과 자유가 동일하다면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완고한 자기충족과 자기지배의 이상인 주권은 다원성의 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이다(아렌트 2017, 330).”

그렇다면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정치체에서의 주권은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일까? 아렌트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주권은 다소 마법적으로 사람들을 복돋우는 동일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타당하고 구속력 있게 하는, 모두가 동의한 목적에 의해 제한되고 유지된다(아렌트 2017, 342)”며, “개별 인격이라는 독

10) 홉스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적 이해는 아렌트 2006, 289-301 참고.

립체나 집단적인 민족이라는 독립체(아렌트 2017, 342)가 아닌 정치체 내에서 “약속하는 힘”,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이라는 체계 하에 공적 공간을 확보한 정치체 내에서의 주권은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절대군주의 주권적 의지를 국민의 일반의지로 대체한 프랑스 혁명의 사례와는 명백히 다른 주권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베스트팔렌 체제는 집단적 민족이나 단일국민의 주권을 상정하고 있어 영토 내 소수민족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유럽적인 의미에서 국민국가라는 공통의 언어와 역사적 경험을 소유한 동질적인 주민들의 정치공동체를 의미했다. 그러나 아렌트는 전쟁과 이주의 발발로 인해 유럽의 어느 국가도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Selinger 2016, 423). 그럼에도 국민국가는 국민들에게만 시민권을 인정했으며 출생이나 혈통의 권리로 인해 국가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온존한 시민권과 정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아렌트 2006, 431).

특히 그는 유럽의 베스트팔렌 체제가 세계적 표준으로 확산·이식된 기점인 1차대전 이후, 다민족국가에서 주민족(state peoples)과 소수민족(minorities)이 분리되어 주민족들에게 정부를 위탁하여 지배권과 주권이 주어지고, 소수민족에게는 소수민족조약이라는 예외적 법체계를 적용하여 예속되는 형태를 지적했다. 그 결과 이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 진정한 주권은 완전한 민족 해방과 함께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아렌트 2006, 496-497). 국가가 부분적으로 법의 도구로부터 국민의 도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편협성과 단견은 전체주의라는 재앙으로 귀결되기까지 했음을 지적했다(아렌트 2006, 54).

그런데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단일민족 기반의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면 결국 영토 내에서의 한 정치주권과 단일한 민족성이 지배하게 된다. 또, 만일 주민들이 권력의 공유를 거절하거나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면, 소수민족은 영토 안에서 어떤 정치체에도 의지할 수 없다(Selinger 2016, 422). 따라서 아렌트는 결국 유대 국민국가의 수립은 곧 소수인 팔레스타인의 이등 시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Arendt 1944c, 343). 이러한 방식은 반유대주의적 억압의 뒤집힌 재현이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이 식민주의적인 방법을 재현하여 다수자인 아랍에게 소수자의 위치를 부여하게 되는 셈이었다. 이로써 아랍에게는 자발적인 이주 또는 이등시민의 선택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 대목에서 아렌트는 아마도 자신이 이등시민으로 머물고 싶지 않아 독일에서 떠나게 된 경험을 상기했을 것이다(아렌트 2016, 29).

또한 아렌트는 “Peace or Armistice in the Near East?(1950)”를 통해 유대 국민국가 건설로 인해 아랍이 발칸화(Balkanization)될 것을 우려했다(Arendt 1950, 446-450). 주목할만한 통찰이었다. 발칸화란 원래의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발칸(Balkan)에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sup>11)</sup> 메스트로비치(1994)에 의하면 발칸화란 본래 하나였던 정치 단위가 서로 적대하는 작은 단위로 분할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발칸지역에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동맹이 분열되고 연합이 붕괴되는 현상이나 역내 소수자나 종족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되는 현상을 뜻한다(Mestrovic 1994, viii). 앞서 아렌트가 국민국가 비판의 사례로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를 언급하였던 것에서도 보듯, 그는 1차 대전 이후 소수민족조약이 적용된 발칸지역의 결말과 그 원인을 탐색하며 반면교사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민족이 공존하던 지역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국가체계가 당연시될 때, 독립국 간 갈등의 해결방식은 전쟁 이외의 다른 최후방책은 없다는 점 또한 당연한 듯 전제된다(아렌트 2016, 152). 아렌트는 이렇듯 발칸지역 및 발칸화에 대한 역사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랍의 소국들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트랜스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민족주권을 주장한다면 결국 아랍지역은 민족 이익을 해하는,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것을 우려했다(Arendt 1950, 446).

또한 아렌트에 의하면 러시아나 발칸 국가에서는 서구의 국민국가와 달리 국경이 계속 변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상태에 있어 자신들의 뿌리가 없다는 박탈감에서 비롯된 종족 민족주의가 발현되었다. 이로써 발칸은 민족의 신적 기원을 찾게 되면서 다른 민족을 배제하고 민족국가를 설립하려 투쟁하며 분열되었다. 이러한 발칸의 범민족 운동과 유대민족의 뿌리 없는 실존은 아렌트가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었다(아렌트 2006, 434-435). 비교를 통해 그는

11) 용어의 기원은 19세기 말 발칸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오스만 제국 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란 등 민족 단위의 반란이 발생하자,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열강들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발칸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독립 및 분할하면서 이들이 발칸지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발칸화는 이전의 지정학적 단위가 민족 중심으로 새로이 소국으로 분할되는 현상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발칸화’라는 용어는 1차대전 이후 합스부르크 및 로마노프 제국이 분할되면서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등장하게 되어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보다 자세한 발칸 및 발칸화의 어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Simic 2013; Todorova 2009, 21-37 참고. 서부 아프리카의 발칸화는 한양환 2006,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발칸화는 Bates et al. 2007 참고.



다민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설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유대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의 서막을 예견했던 아렌트의 우려는 1948년 4월 18일 이스라엘 국가 설립 선언과 함께 현실화되었다.

## 2. 한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안

아렌트가 하나의 독립적인 논문에서 연방제 구상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저작 곳곳에 산견된 연방에 대한 깊은 사유와 구상들을 모아보면 아렌트의 연방제는,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통합적이며 정교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간기의 소위 연방적 계기(페더럴 모멘트, federal moment)<sup>12</sup>로부터 이스라엘 국가 건설 전후에 이르기까지, 아렌트는 지속적으로 중동지역의 발칸화를 막기 위한 대안은 연방임을 강조했다. 연방제는 자기민족의 밖에서 전체를 조망했던 아렌트의 아르키메데스적 사고가 낳은 이론과 지혜의 정수인 것이다.

그가 보기에 팔레스타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대안 역시 국가의 개념으로부터 민족자결권이 분리된 연방제였다. 그에게 연방은 자발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소위 이소노미(isonomy)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공화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소노미란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는 고대 폴리스의 속성으로 아렌트가 중시했던 개념이다. 첫째, 지배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자유의 정치 조직이다. 군주정(monarchy), 과두정(oligarchy), 민주정(democracy)의 “cracy(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둘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으므로 법을 통해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념이다(아렌트 2004, 97-98). 이처럼 아렌트는 연방을 통해 이소노미, 즉 각 공화정 간 공적 대화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복수성에 대응하는 연방적 평화를 위한 체제를 구상했던 것이다. 아렌트의 구상은 작은 단위의 유대-아랍 공동체 평의회(Jewish-Arab Community Council, Arendt 1948b, 400)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연방, 나아가 유럽연방을 아우르는 3층위의 연방제라는 점에서 소위 확장된 연방체계라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2) 페더럴 모멘트를 전간기로 보는 입장(Loughlin 1993)과, 1945년 이후인 2차대전 이후로 보는 시각(Collins 2013)이 있다.

아렌트가 연방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차대전 후 유럽 국민국가 가 쇠락하는 현실 속에서 대안을 구하면서부터였다(Selinger 2016, 418-419). 전간 기에는 유럽인이든 아니든, 진보적 지식인들 대다수가 국가 주권을 연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했을 정도로 유럽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와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고전적 연방주의 사상으로부터, 오토 바우어(Otto Bauer)나 칼 레너(Karl Renner)가 제시한 온 연방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진행된 것이었다.<sup>13)</sup> 당시 유럽에서는 다민족국가인 합스부르크, 로마노프,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많은 국민국가들과 소수민족들이 등장했다. 이 중 소수자들은 오로지 조국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만 국가에 의한 보호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이 없었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국적자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유대인은 전후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정치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연방임을 증명하고자 아렌트는 매우 이른 시점인 1940년에 “The Minority Ques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유대인의 곤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동화와 인구이동을 검토한다. 동화는 이미 19세기 이후 당시에는 효용이 없으며, 인구이동은 조국이 없는 유대인에게는 국외추방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연방제 안에 유대가 포함될 경우, 조국이 없던 유대인들이 유럽의 연방 체계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었다. 유대는 여타 유럽의 다른 소수민족과 동등한 입지에서 같은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연방제의 도입으로 영토에의 소속을 강조하던 이전의 인식에서, 유럽 연방에의 소속으로 인식이 전환될 것을 기대했다(Arendt 1940, 133). 이처럼 아렌트는 유대 문제는 유럽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렌트는 당시 존재하였던 세 가지의 연방 사례를 제시하며 연방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입증하고자 했다.

첫째는 소비에트 연합(Soviet Union, 이하 소련)이다. 소련은 아렌트가 나치

13) 당시 유럽의 연방주의는 하나의 이념 또는 사회구성의 원리로서, 제도나 국가 구조보다는 형성 원리로서 제시되었다. 레너와 바우어는 사회주의적 제안을 했는데, 민족의식을 영토로부터 분리해 개인지위로 만들어, 국가를 영토적 통일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으로 조직하자는 것이었다(Nimni 1999). 또한 이 시기, 즉 이스라엘 건국기 키부츠 운동의 사상적 흐름을 정립한 구스타프 란다우어(Gustav Landauer) 역시 사회주의의 이론 하에 개인들의 결합에 주목했다. 그는 국민국가의 전체주의화를 우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형성과 이들의 연방을 옹호하는 연방주의를 제시했던 바 있다(김영일 2001).

독일에 버금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간주했을 정도로 체제의 본질과 운영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비판할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련의 구성원리와 역사상의 입지에 주목했다. 소련은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들과 민족들의 연방을 대표하는 정부를 만들어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국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이다. 이는 대영 제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영국이라는 모국과 영국인들이 정착한 세계 각국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을 구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의 형태를 통해서만 영국의 섬들이 영국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설명이었다(Arendt 1943a, 196).

세 번째는 미국이다. 미국은 아렌트가 예찬했던 연방의 궁극적 형태이므로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아렌트 2004, 239-338). 미국의 국부들은 공화주의적인 헌법에 입각한 권력으로서의 연방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열세 개 공화국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권력의 중심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매디슨(James Madison)은 각 주들이 중앙정부에 권력을 양도하지 않고, 또 중앙정부의 권력이 주정부의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을 구상하면서 연방과 주 정부 권력 간의 균형, 권력 속의 권력이자 주권 속의 주권을 실현하는 공화적 연방(republican federation)을 구성해 냈다. 이는 몽테스키외의 ‘연방 공화국(confederate republic)’ 논의에서 그 근간을 찾을 수 있다(해밀턴 외 2019, 75-77).

아렌트의 연방주의는 공화주의의 원리와 분리되지 않는다(아렌트 2004, 281). 이는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제퍼슨은 소규모 공화국이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이로써 소규모 기구들을 연방이라는 정부 구조에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각기 법에 기초하여 각 공화국이 권력의 몫을 유지케 하며, 진정 통치를 위해 근본적 균형과 견제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렌트 2004, 389). 작은 공화국들은 각각 내부적 행복을 향유할 뿐 아니라, 한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봉기 등의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를 제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연합체로서 대규모 국가의 이점까지 보유할 수 있다. 미국의 기원에서 보자면 이민자들이 구성한 시민적 정치체라는 자치체들로부터 시작되어, 이 작은 공화국들의 권력이 연방 속에 지속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광대한 규모의 영토에도 공화주의적 원리를 실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양성과 복수성을 갖는 각 개인들, 그리고 공화국들의 자치와 권력을 보장하면서도, 이것이 공화적 자유와 공존하여 궁극적인 공화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인류가 지상에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 중 하나였다.

또한 아렌트는 미국이 영토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연방주의로서 민족연방에 근접할 정도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았다. 심지어 미국은 소련과는 달리 어떤 혁명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쳐 소련의 연방주의와 매우 유사한 정치체를 구축해냈다. 단일한 혹은 우세한 미국 민족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민족범주와 민족 각각의 정치적 지위가 존중된다. 연방은 민족들이 아닌 법에 의한 권력 하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다음의 로시터의 글을 인용한다. “여러분이 잉글랜드인이든 아일랜드인이든 독일인이든, 아니면 스웨덴인이든, 영국인들이 향유한 모든 시민적 자유와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적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Rossiter 1956, 20, 아렌트 2004, 249에서 재인용)”.

물론 이상의 사례들이 연방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델인 것은 아니다. 아렌트는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연방이 현실 불가능한 대안이 아닌, 현실적이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장 평등한 정치체제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장 독특하고 주목할만한 것은, 아렌트의 연방제안이 동심원적 구조로 형성되는 3층위의 연방제라는 점이다. 1층위는, 전술한 바 있는, 도시와 지방 단위에서의 유대인-아랍인 공동체 평의회이다. 아렌트는 평의회가 19세기 민족 국가와 20세기 전체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 대안이라고 여겼다. 또한 평의회야말로 근대의 혁명 정신을 담고 있으며, 근대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자유’의 ‘섬’으로 비유하였다. 평의회는 이소노미를 구현한 형태로, 평의회 내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닌 평등한 존재로 만나게 된다. 구성원들은 당 체제에 의해 선발되지 않고, 개인적 자질을 기반으로 동료들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다. 이러한 평의회야말로 아렌트가 생각하기에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정치적 수단이었다(번스타인 2018, 191-193). 이렇듯 평의회로 이루어진 국가는 권력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연방제에 적합하다.

지역 평의회를 디딤돌로 하여, 각기 독자적인 유대연방이나 아랍연방이 아닌, 보다 더 큰 단위의 지역연방에 팔레스타인이 소속될 수 있다. 제 2층위의 연방이다. 아렌트가 제시한 안은 지중해 연방과 영연방 두 가지 형태였다(Arendt 1943a, 196-197). 첫째, ‘지중해 연방(Mediterranean Federation)’이다. 지중해 연방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북아프리카가 모두 포함된다. 유럽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북아프리카 없이 경제적으로 존속될 수 없으므로, 식민지 문제에 공정하고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아랍의 대표성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 역시 지중해

에서의 자존심과 장소성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을 유대조국으로 남겨두면서도 아랍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영연방(a new British Commonwealth)으로의 편입이다. 영연방은 인도의 경우처럼 비영국출신의 인민들도 포함된 거대 연방체이다. 이 경우 유대-아랍 연방을 이룬 팔레스타인이 영연방의 하부 지역으로 포함되어, 다른 영연방 하 인민들처럼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3번째 층위는 유럽 연방(Federation of European Countries)에의 포함이다 (Arendt 1943a, 197). 이때의 유럽연방이라 함은 근동과 북아프리카를 모두 포함한다. 이로써 유대는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유럽 내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우호적 조건으로 극단적 반유대주의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아랍 역시 유럽인으로 포함될 것이며, 아랍의 봉건·낙후·극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범아랍주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과 세계 유대인들의 고향으로서 남을 수 있게 된다.

아렌트는 유럽연방이 유럽을 위할 뿐 아니라 유대민족을 위한 최선의, 최고의 안이라고 보았다. 유럽연방은 영토와는 관계없이, 민족(nationality)에 기초해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아렌트가 민족을 구성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민족에 의한 분류가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안정적인 분류 체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elinger 2016, 425). 그리하여 유럽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무국적자 유대인들은 유럽 의회 안에서 대표권을 갖고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내에서 유대민족은 유럽의 민족들과 동일한 정치적 목소리와 힘을 가진 민족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여 반유대주의에 대처하지 못했던, 중국에는 홀로코스트라는 파국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유대인의 정치적 무능력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다수민족 대 소수민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사례처럼 구성원 수가 아닌 민족 단위로 대표하게 되므로 국가 내 소수-다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각 구성원들은 "한 영토에 소속되었던 소속감에서 벗어나 연방(commonwealth) 전체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민족들의 연방'에의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연방구조 안에서 민족은 영토와 결부된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지위가 될 것이다. 결국 민족정체성, 민족소속감으로부터 비롯한 민족 갈등은 이제 상위의, 공동의 연방정부 수준으로 상승되고 갈등이 중화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렌트는 연방제가 유대인들의 오랜 귀환소망, 본향의식에도 배치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팔

레스타인이 연방으로 통합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인의 민족적 조국, 고향의 이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Arendt 1943a, 196-197).

아렌트는 이러한 3층위가 결합된 연방제안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음에도, 1948년을 기점으로 히브리 대학교 초대 총장 유다 마그네스(Judah Magnes)가 이끌던 이후드(Ihud, 통합) 당의 1국가 2민족 안(4)을 지지한 바 있다.<sup>15)</sup> 이는 이스라엘 국가 독립이라는 급박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그네스 안의 세부는 다음과 같다. 1943년 마그네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국이 구상한 아랍연방의 일부가 될 팔레스타인 연합(Union for Palestine)을 제안했다. 이 연합은 첫째, 팔레스타인 내의 아랍과 유대의 2민족으로 구성된 국가(binational state), 둘째, 팔레스타인,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과 경제 및 정치적 연방의 구상, 셋째, 자유 진영의 일부로서의 앵글로-아메리칸 연방의 연합이었다(Magnes 1943). 또한 팔레스타인이 지닌 국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에서 팔레스타인을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이 신탁통치안은 팔레스타인 통치정책 및 안보가 보장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연방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영국, 아랍 세계를 대표하는 아랍연맹, 유대세계를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연합(Jewish Agency)을 모두 포함하려 했다. 이때 영국은 식민통치국가가 아닌 행정적 권위체를 담당할 수 있다. 이 협의체에는 유대와 아랍의 고위 관료가 포함된다. 나아가 팔레스타인은 아랍 연방에 포함되고, 앵글로-아메리칸 동맹(Anglo-American Alliance)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렌트의 안은 마그네스의 안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안은 모두 유대와 아랍 간 협력을 중시한다. 이는 팔레스타인 내

14) 바이내셔널리즘(binationalism, binational approach)은 그간 “두 민족 국가(파페 2017, 77)”, “2민족 국가(영-브릴 2007, 383)”, “이중 민족 국가(번스타인 2009, 181)”, “1국가 2민족 공존(인남식 2017, 20)”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한편 오늘날의 바이내셔널리즘은 거칠게는 1국가 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내셔널리즘의 어원적 의미나, 그 주장하는 바의 내용이 두 민족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1국가 2민족안으로 칭한다.

15) 마그네스는 1923년부터 25년까지 지속되었던 ‘평화의 계약(Brit Shalom)’이라 이름한 지식인들과 대학교수들로 조직된 소집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벨푸어 선언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온주의의 배반자로 비난 받았다. 1942년 5월 시온주의 그룹이 영국의 연방안을 의식하여 빌트모어 계획을 공개하자, 이에 반발한 유대 지식인 몇명이 모여 마그네스를 주축으로 통합(unity)이라는 의미의 이후드(Ihud) 당을 설립했다.

아랍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빌트모어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와는 상충된다. 둘째, 과정 면에서 신탁통치를 지지한 것이다. 아렌트 역시 신탁통치는 평화 조약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현실적인 안이자, 차후 연방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마그네스의 신탁통치안에도 적극적 지지를 보내면서, 신탁통치안이 이루어진다면 유대-아랍 간 분쟁을 냉각시키고 팔레스타인의 분할을 연기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Arendt 1945b, 240; Arendt 1948b, 399-400). 그러나 신탁통치안은 유대인 기구(Jewish Agency)와 아랍 최고 동맹(Arab Higher League)에 의해 즉각적으로 거부되었다.

마그네스의 안과 아렌트 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요한 차이는 지역 단위 연방의 형태였다. 아렌트는 지중해 연방과 영연방에로의 포함을 주장했던 반면, 마그네스는 아랍연방안을 구상했다. 아렌트는 유대와 아랍이 어느 한편의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고 범민족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마그네스가 구상한 아랍연방으로의 소속으로는 유대-아랍 간 소수다수의 위계질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었다. 시온주의자협회는 현재의 다수인 아랍에게 소수의 권리를 부여하려 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드는 보다 더 큰 아랍연방에서 유대인을 소수자로 위치한다는 설명이다(Arendt 1943b, 336). 둘째, 연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다. 아렌트는 일찍이 마그네스가 1민족 2국가를 “연방”이라 칭한 것을 두고, 연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어를 사장시킨다고 보았다. 마그네스안은 여전히 민족국가의 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의 1민족 2국가는 복수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Arendt 1943b, 336). 이에 따라 마그네스 안을 지지하고 있는 그의 글에서도, 아렌트는 마그네스 안을 “Confederation”, 즉 두 독립된 정치적 실체 간의 연합이라 하여 한 정치체 내 복수의 정부로 구성된 “Federation”과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Confederation은 결국 Federation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이다(Arendt 1950, 446).

한편, 유엔 결의안 181호가 통과된 직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되는 게릴라전과 테러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입했다. 유대인들은 원래의 국제연합의 결정을 고수했으며, 아랍인들은 국제연맹이 정했던 자결권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듯 첨예한 유대-아랍 간 대립 가운데서도 이들 간 전쟁을 막으려는 외부 당국자는 부재했다(번스타인 2018, 188). 당시의 상황을 조망하던 아렌트는 유대와 아랍 간 전면전을 우려하여, 결국 아랍과 유대의 협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홀로 제3의 안을 주장하기보다 대세를 이루던 두 대안 중 하나를 택

하여 정치적 지지자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ubin 2015, 412). 실제로 아렌트는 이스라엘 국가건설 이후인 1948년 6월 마그네스와 그의 지지자들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마그네스와는 4개월 간 20통이 넘는 서신을 교환하였고, 마그네스의 초안에 조언 및 수정을 가하기도 했다(영브 웰 2007, 386-395). 또한 아렌트는 이후드야말로 유대인 집단들 중에서도 아랍과 유대 간 협력이라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집단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아렌트와 마그네스는 UN으로부터 중재 역할을 맡게 된 베르나도테(Folke Bernadotte greve af Wisborg)의 평화의 안(UNSCR 1948)을 함께 지지했다. 해당 안은 트랜스요르단 전역에 아랍과 유대의 연합(union) 구성, 양자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구성을 담고 있었는데, 아렌트는 이것이 트랜스요르단 지역 내 아랍-유대의 연합을 일찍이 언급했던 마그네스의 안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Arendt 1948a, 408).

이처럼 아렌트가 자신의 연방구상에서 마그네스안 및 베르나도테안을 지지했던 이유는, 당시 대두되던 분할안을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태도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아렌트가 평소 강조했던 바, 정치는 이상적·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Arendt 1948b, 400), “현실에 주의 깊게 맞서는(아렌트 2006, 34)”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가능한 전환이다(빈스타인 2018, 188).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렌트안과 마그네스안은 유대-아랍 간 협력 구도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유사할 뿐이며, 마그네스안으로는 소수 대 다수 정치의 구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렌트가 마그네스안을 지지하는 한편, 결국 평의회가 연방구조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하였던 것을 보면 아렌트의 3층위 연방안 구상의 본질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Arendt 1948b, 400).

## V. 결 론

이상에서 본고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렌트의 연방구상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오늘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복잡함을 넘어 해결이 난해한 인류사적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유대와 아랍은 강렬한 배타적 민족주의 정념에 기반하여 그동안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이래 무려 70년 가까이 전쟁과 테러로 점철된 살육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개입 혹은 방기로도 쉽사리 풀기 힘든 난제가 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요원해지는 동안 정착촌의 주민도, 난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정착촌의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는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sup>16)</sup> 특히 정착촌은 이스라엘의 6일 전쟁 이후 극단주의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온 지역으로, 2019년 4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총선 공약으로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병합하겠다(Holmes 2019)”라고 선포했던 바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도 중대한 사안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Hamas)의 거점이 된 가자지역을 반면교사 삼아, 안보적 이유에서라도 서안지구에서의 정착촌 유지 및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2017년 추산 62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점령지 내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다 (<https://www.btselem.org/settlements>, 2020/01/15 검색). 또한 1948년 1차 중동 전쟁 이래 현재까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서안 및 가자 지구 등지에 분포된 541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귀환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 비율인 677만 유대인 대 191만 아랍인, 즉 74%대 21%의 비율에서 677만 대 732만, 즉 46% 대 50%로 아랍인 비율이 유대인을 상회하게 된다.<sup>17)</sup>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난민도 귀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악화되는 문제의 교착 속에서 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이론적·현실적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유대·아랍 간에 영토와 민족이 지닌 실체, 즉 이 두 요소들 간의 비분리성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근대 국가형성(state-making)이나 국민형성(nation-building)으로 이 지역을 분획하는 것은 둘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다민족·다인종·다종교로 점철된 이 지역의 역사적 실체를 무시하여 오히려 충돌을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 등 국민국가에 기반한 해법으로는 이 지역의 갈등해결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할 제도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아렌트의 연방제 안에서 찾아보려하였다. 나아가 아렌트의 구상이 바람직한 동시에 현실적인 대

16) 정착촌 문제와 난민 귀환문제를 지적하여 분석한 글은 안승훈 2016; 인남식 2017 참고.  
 17) 유대와 아랍을 제외한 인구는 약 44만명이다. 팔레스타인 난민 인구는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UNRWA), <https://www.unrwa.org/where-we-work/gaza-strip>, 2020/03/14 검색.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인구 추산은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latest-population-statistics-for-israel>, 2020/01/15 검색.

안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렌트는 유대인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는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럽문제이며, 따라서 유럽적 차원에서만 풀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아렌트는 주권 개념과 국민국가 체제가 지닌 본질적 문제를 날카롭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를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에 위치시켜 유대국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는 시온주의자들을 비판했으며, 동시에 아랍과 유대의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균형적이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서, 유대-아랍 공동체 평의회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연방(지중해연방/신(新) 영연방), 그리고 유럽연방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아랍-유대 공존안인 3층위 연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연방구상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민족·다종교·다문화의 융합과 충돌로 혼합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 적합한 정치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종교·문화의 구분에서 비롯되어 집단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배타적 독점적 주권이 지배하는 국민국가 체계는 발칸화와 독립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그러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는 개인의 복수성에 바탕해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위에서 구성된 정치체도로서,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평의회, 그리고 평의회가 결성한 지역연방, 나아가 보편에 포함될 수 있는 유럽연방까지 확장되어 궁극적인 공화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인 것이다. 아렌트의 연방구상은 아렌트 연구와 아렌트 사유의 새로운 영역이자 이팔문제의 현재에 유효한 대안이며, 나아가 보편적으로 다민족·다문화·다인종으로 구성된 지역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평화의 안이 될 수 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설립의 전과 후,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 아렌트가 절실히 요청했던 연방제안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리하여 아랍-유대 간 연방구축에 성공했더라면, 내부 갈등은 중화되고 강대국에의 의존도를 낮추어 평화로의 도약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이팔 갈등은 곧 아렌트의 연방안을 재탐구하기보다는 여전히 국민국가론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다. 아렌트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공동 평화를 지향하는 몇몇 학자와 실천가들로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 연방안(confederation)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아렌트 구상의 이론적 부활로 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sup>18)</sup> 아렌트의 구상에 바탕한 실질적 협력과 실천이 좀 더 진척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검증과 비교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18) 최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연방안에 대해서는 Avesar 2007; Lakoff 2016 참고.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공병혜. 2017. “탄생철학과 아렌트의 시작의 의미.” 『철학탐구』 46, 95-127.
- 김민수. 2019.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내재된 행위 개념의 의미와 논란.” 『민주주의와 인권』 19(2), 295-323.
- 김선욱. 2001.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67, 221-239.
- 김선욱. 2007. “근본악과 평범한 악 개념: 악 개념의 정치철학적 지평.” 『사회와 철학』 13, 31-50.
- 김선욱. 2015.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서울: 아포리아.
- 김영일. 2001. “구스타프 란다우어의 연방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5(1), 43-63.
- 몬티피오리, 사이먼 시백. 유달승 옮김. 2012. 『예루살렘 전기』. 서울: 시공사.
- 박명림. 2015. “한나 아렌트와 정치철학 소묘-개인과 세계의 평화.”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철학/사상 8강』 2015년 5월 20일 발표논문.
- 박혁. 2009. “사멸성, 탄생성 그리고 정치: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사멸성과 탄생성의 인간조건이 갖는 정치적 함의.” 『민주주의와 인권』 9(2), 251-279.
- 박혁. 2014. “활동적 삶과 정치: 한나 아렌트에게서 다원성과 인간활동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7(1), 5-43.
- 번스타인, 리처드 J. 김선욱 옮김. 2009.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서울: 아모르문디.
- 번스타인, 리처드 J. 김선욱 옮김. 2018.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파주: 한길사.
- 서유경. 2014. “공연(公演)의 정치에서 심의(審議)의 정치로?: 한국 참여민주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아렌트 정치행위론적 성찰.” 『대한정치학회보』 22(2), 19-45.
- 서유경. 2018. “한나 아렌트 정치사상과 오늘의 글로벌 폴리틱스 : 인권, 유목적 폴리스,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28(2), 27-62.
- 아렌트, 한나. 윤철희 옮김. 2016. 『한나아렌트의 말-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 서울: 마음산책.
- 아렌트, 한나. 이진우 옮김. 2017. 『인간의 조건』. 파주: 한길사.

- 아렌트, 한나. 이진우, 박미애 옮김.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파주: 한길사.
- 아렌트, 한나. 홍원표 옮김. 2004. 『혁명론』. 서울: 한길사.
- 안승훈. 201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32(1), 105-136.
- 야스퍼스, 카를. 이재승 옮김. 2014.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서울: 엘피.
- 영브뤼, 엘리자베스. 홍원표 옮김. 2007. 『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 사랑을 위하여』. 고양: 인간사랑.
- 인남식. 2017.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현황과 전망: ‘양(兩)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의 한계와 대안 논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3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임미원. 2019.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기초적 고찰.” 『법철학연구』 22(1), 203-234.
- 장원석. 2014.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근본악의 문제.” 『평화학연구』 15(5), 31-49.
- 파페, 일란. 유강은 옮김. 2017. 『팔레스타인 비극사』. 파주: 열린책들.
- 한양환. 2006.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의 발간화-주변부화-세계화 과정 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3, 243-280.
- 해밀턴, 알렉산더,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박찬표 옮김. 2019. 『페더럴리스트』. 서울: 후마니타스.
- 홉스, 토마스. 최공웅, 최진원 옮김. 2009.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 홍미정. 2006.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KNSI 현안진단 25호.
- 홍원표. 2004. “언어행위와 공공영역: 대화, 논쟁, 이야기하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91-115.
- 홍원표. 2005.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선악의 문제.” 『정치사상연구』 11(2), 179-201.
- 홍원표. 2007. “한나 아렌트의 ‘새로운 시작’ 개념과 그 변형.” 『정치사상연구』 13(1), 79-102.
- 홍태영. 2018. “타자의 윤리와 환대 그리고 권리의 정치.” 『국제지역연구』 27(1), 87-112.

## 영문 자료

- Arendt, Hannah. 1940. "The Minority Questio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125-133.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2. "Jewish Politics."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41-243.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3a. "Can the Jewish-Arab Question Be Solve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193-198.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3b. "The Crisis of Zionism."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29-33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3c. "We Refugees."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64-274.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4a. "The End of a Rumor."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06-208.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4b. "The Jew as Pariah: A Hidden Traditio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75-29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4c. "Zionism Reconsidere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43-374.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5a. "The Assets of Personality: A Review of Chaim Weizmann: Statesman, Scientist, Builder of the Jewish Commonwealth."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02-404.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5b. "Jewish Chances: Sparse Prospects, Divided Representatio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38-240.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6. "The Jewish State: Fifty Years After, Where Have Herzl's Politics Le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75-38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8a. "The Failure of Reason: The Mission of Bernadott."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08-413.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8b. "To Save the Jewish Homelan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88-401.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9. "Single Track to Zion: A Review of Trial and Error: The Autography of Chaim Weizman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05-40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50. "Peace or Armistice in the Near East?"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23-450.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52. "Magnes, the Conscience of the Jewish People."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51-452.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endt, Hannah. 2005. *Essays in Understanding, 1930-1954: Formation, Exile, and Totalitarianism* New York: Schocken.
- As'ad, Ghanem and Dan A. Bavly. 2016. "Seeking an Egalitarian State in Palestine/Israel: The Recent Debate about Binationalism." *Constellations* 23(3), 329-339.
- Avesar, Josef. 2007. "The Israeli-Palestinian Confederation Proposal." *Palestine - Israel Journal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14(2), 52-57.
- Barclay, James Turner. 1858. *The City of the Great King* London: Trubner & Co.
- Bates, Robert H., John H. Coatsworth, and Jeffrey G. Williamson. 2007. "Lost Decades: Postindependence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7(4), 917-943.
- Collins, Michael. 2013. "Decolonisation and the "Federal Moment"". *Diplomacy & Statecraft* 24(1), 21-40.
- Hassassian, Manuel. 2019. "A Paradigm Shift from Two-State to One-State

- Solution." *Palestine - Israel Journal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24(1/2), 120-128.
- Heuer, Wolfgang. 2019. "The Peacekeeping Role of the Federal Principle." Paper presented at the Special Lecture of the Center for Human Peace and Healing, Yonsei University, Seoul, February 27, 2019.
- Holland, Jocelyn and Edgar Landgraf. 2014. "The Archimedean Point: From Fixed Positions to the Limits of Theory." *SubStance* 43(3), 3-11.
- Hughes, Matthew. 2009. "The Banality of Brutality: British Armed Forces and the Repression of the Arab Revolt in Palestine, 1936-39."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24(507), 313-354.
- Jacobson, Eric. 2013. "Why did Hannah Arendt Reject the Partition of Palestine?"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7(4), 358-381.
- Klusmeyer, Douglas. 2010. "Hannah Arendt's Case for Federalism." *Publius* 40(1), 31-58.
- Lakoff, Sanford. 2016. "One Way to Resolve the Israeli-Arab Conflict: a Three-State Confederation." *The Wilson Quarterly* Winter (1).
- Loughlin, John. 1993. "Federalism, Regionalism and European Union." *Politics* 13(1), 9-16.
- Magnes, Judah L. 1943. "Toward Peace in Palestine." *Foreign Affairs* 21(1), 239-249.
- Mestrovic, Stjepan G. 1994. *The Balkanization of The West: The Confluence of Postmodernism and Postcommu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imni, Ephraim. 1999. "Nationalist Multiculturalism in Late Imperial Austria as a Critique of Contemporary Liberalism: The Case of Bauer and Renner."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4(3), 289-314.
- Nusseibeh, Sari & Anthony David. 2007. *Once upon a Country: A Palestinian Lif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Raz-Krakotzkin, Amnon. 2011. "Exile and Binationalism-From Gershom Scholem and Hannah Arendt to Edward Said and Mahmoud Darwish." Paper Presented at the Carl Heinrich Becker Lecture der Fritz Thyssen Stiftung, Berlin, June 14.
- Rossiter, Clinton. 1956. *The First America Revolution*. Boston: Mariner Books.
- Roy, Sara. 2006. *Failing Peace Gaza and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London:

Pluto Press.

- Rubin, Gil. 2015. "From Federalism to Binationalism: Hannah Arendt's Shifting Zionism."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24(3), 393-414.
- Schneer, Jonathan. 2010. *The Balfour Declaration: The Origins of the Arab-Israeli Conflict*. New York: Random House.
- Selinger, William. 2016. "The Politics of Arendtian Historiography: European Federatio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Modern Intellectual History* 13(2), 417-446.
- Sheehan, James J. 2006. "The Problem of Sovereignty in Europe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1-15.
- Simic, Predrag. 2013. "Balkans and Balkanisation: Western Perceptions of the Balkans in the Carnegie Commission's Reports on the Balkan Wars from 1914 to 1996." *Perceptions* 18(2), 113-134.
- Smith, Charles D. 2017. *Palestine and the Arab-Israeli Conflict(9th Edition)*. MA: Bedford/St. Martin's.
- Todorova, Maria. 2009. *Imagining The Balk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58. *The Religion of India: The Sociology of Hinduism and Buddhism* transl. and ed. by Hans H. Gerth and Don Martindale. Illinois: The Free Press.
- Yaqoob, Waseem. 2014. "The Archimedean Point: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Thought of Hannah Arendt, 1951-1963." *Journal of European Studies* 44(3), 199-224.

#### 인터넷 및 기타자료

- B'Tselem. 2017. "Settlements." <https://www.btselem.org/settlements> (2020/01/15 검색).
- Cashman, Greer F. 2019. "Hope Fading for the Two-State Solution, says Friedrich Ebert Foundation Director." *The Jerusalem Post*, <https://www.jpost.com/Arab-Israeli-Conflict/Hope-fading-for-two-state-solution-to-Israeli-Palestinian-conflict-592985> (2020/01/15 검색).
- Holmes, Oliver. 2019. "Netanyahu vows to annex Jewish settlements in occupied West Bank."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 world/2019/apr/07/netanyahu-vows-to-annexe-jewish-settlements-in-occupied-west-bank (2020/01/15 검색).
-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latest-population-statistics-for-israel> (2020/01/15 검색).
-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 (2020/01/15 검색).
- Knesset. <https://main.knesset.gov.il/EN/activity/Pages/BasicLaws.aspx> (2020/01/15 검색).
- MacDonald, Malcom. 1939. "British White Paper of 1939." Yale University,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brwh1939.asp](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brwh1939.asp), retrieved 02/07/2014. abbr.: Yale University 1939(2020/01/15 검색).
- Peel, William Robert Wellesley et al. 1937. "Report of the Palestine Royal Commission" UNISPAL, <http://unispal.un.org/pdfs/Cmd5479.pdf> 7 (2020/01/15 검색).
- Rosner, Shmuel. 2019. "Israel's Election Shows How Dead the Two-State Solution Really I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9/02/27/opinion/israel-election-two-state-solution.html>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7. "Resolution 181(II):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1947) of 29 November 1947." A/RES/181(II). <https://unispal.un.org/DPA/DPR/unispal.nsf/c17b3a9d4bfb04c985257b28006e4ea6/7f0af2bd897689b785256c330061d253?OpenDocument>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https://www.unrwa.org/where-we-work/gaza-strip> (2020/03/14 검색).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R). 1948. "Text of Suggestions 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Mediator on Palestine to the Two Parties on 28 June 194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0499>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R). 1980. "Resolution 478: Territories Occupied by Israel (1980) of 20 August 1980." <http://unscr.com/en/resolutions/478>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R). 1981. "Resolution 497: Israel-Syrian

Arab Republic (1981) of 17 December 1981.” <http://unscr.com/en/resolutions/497> (2020/01/15 검색).

Abstract

**A Research on the Three-layered Federation of  
Hannah Arendt : A Peace Initiative for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Park, Myung-lim ■ Yonsei University

Kang, Hyoin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s on the unique three-layered federal peace initiative of Hannah Arendt, the 20th-century political thinker. Arendt had foreseen the upcoming conflict in the urgent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foundation of the State of Israel and introduced a federation of Israel-Palestine as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since Palestine has been a region of multiple nations and ethnicities, and of frequent tensions and conflicts among civilizations. Based on her writings, this paper analyzes Arendt's peace initiative for Israel and Palestine, especially the idea of federation, which has never come to the fore by Arendtian academy. Even though she was a Jew, Arendt criticized the construction of the Jewish Commonwealth and Israel with a keen criticism of the nation-state system and the concept of sovereignty through Archimedean ideological transformation—the viewpoint from inside and out. At the same time, Arendt proposes the three-layered Arab-Jewish federation, as a desirable and realistic way to establish peace regimes between Arab and Jewish, including Arab-Jewish community councils, regional federations(Mediterranean Federation/New British Commonwealth), and a federation of European countries. In her view, this three-layered federation is the most suitable political body to create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region, which has been an amalgam of multiethnic,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ism in its long history.

Key Words: Hannah Arendt, Federation, Federalism, Peace Initiative, Israel-Palestine Conflict

□ 논문접수일: 2020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4일

